

EUROPE

유럽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EUROPE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영국 정책추진체계 현황』

◎ 작성취지

- 본 보고서는 최근 영국의 주요 정책 추진 체계 현황에 관한 자료들을 통해 최근 창조산업 정책에 대한 변화와 기관들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작성자 : 박진수 (UCL 박사과정)

◎ 작성순서

1. 「정책/제도 현황」
2. 「조직/추진체계 현황」
3. 「예산」

◎ 출처

- 워크 재단(The Work Foundation) 보고서 Staying Ahead(2007)
- 문화부 (DCMS)와 기업혁신기술부(BIS) 가 2011년 공동으로 진행한 “창조산업 비즈니스와 자금 (Access to Finance for the Creative Industry Business)” 연구 보고서

1. 『영국 정책추진체계 현황』

■ 정책/제도 현황

- 2001년 영국문화부는 “창조산업분류작업보고서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를 통해 창조산업 분야에 대한 정의를 내린바 있음
- 보고서는 광고, 예술 및 고미술, 컴퓨터 게임, 공예,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음악, 영화 및 비디오,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그리고 TV 및 라디오를 포함한 위 분야들을 소위 “문화부 13개 창조산업 리스트” 로 분류함
- 영국정부는 지난 노동당이 출범한 1997년 이후로 창조산업을 영국경제 부흥에 가장 큰 하나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을 해오고 있음

- 특히 지난 2010년 카메룬 총리는 그의 경제성장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창조산업이 균형 잡힌 영국 전체 경제를 위한 성장 분야라 강조함
- 워크 재단(The Work Foundation)이 문화부에 보고한 보고서 Staying Ahead(2007)는 최근 영국의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영국정부의 향후 창조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2010년 12월에 발간된 “영국 창조산업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게 해당산업에 대한 정부의 필요한 정책들을 열거하고 있음
 - “영국창조산업 미래” 보고서는 현재 경기침체와 집중성,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변화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영국 창조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함
 - 향후 정책에 대한 과제
 - 영국 정부는 현재 해당 국제 시장에서 이전에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 영국정부는 창조산업에 대한 연구와 혁신적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행해야 함
 - 영국정부는 산업계 전체, 투자가, 그리고 새로이 이 분야에 뛰어드는 일꾼들에게 창조산업이 성장 가능한 분야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문화부 (DCMS)와 기업혁신기술부(BIS) 가 2011년 공동으로 진행한 “창조산업 비즈니스와 자금 (Access to Finance for the Creative Industry Business)” 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당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 확보 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함
 - 창조산업 관련 산업체의 자금 확보의 걸림돌
 - 시장이 원하는 상품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 예를 들어 어떤 영화작품이 다음에 히트를 칠 수 있을 것인가?
 - 업체 측의 재능에 관한 불확실성, 예를 들어 누가 다음에 부상할 아티스트를 발굴할 수 있을까?
 -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은행이나 다른 여타 금융기관 들이 창조산업체에 대한 자금 유통을 꺼리고 있으며 좀 더 확실한 담보가 될 만한 부차적인 것을 원함
 -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여타 중소기업들 보다 창조산업 기관 업체들이 자금 유통에 있어 더 많은 애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
 - 일반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들에게 특히 소프트웨어 등 지식산업업체들의 대출에 대한 물리적 담보 건이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과 창조산업 내 다른 분야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라 지적함
 - 보고서는 창조산업이 가지는 이러한 자금 확보에 관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
 -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대부분의 창조산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당좌대출, 리싱, 및 할부구입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바로 이러한 형식에 있어 창조산업 업체들이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함
 - 둘째,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른 금융지원자들로 부터 창조산업 업체들에 대한 자금 신청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멘토링 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함. 또한 창조산업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 이들로부터도 업체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 언급함

- 셋째, 공급면에서 보면 현재 창조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자들의 수는 현저히 작은 편인데 그 중 대표적인 곳은 the Creative Arts Investment Network(CAIN)와 London Venture Partner (LVP) 등을 들 수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웹을 통해 창조산업 업체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 언급함
- 슈퍼 시티 선정, 지난 3월 재무장관 오스본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주요 10대 도시에 보급하기 위한 1억만 파운드 보조금 계획을 발표함. 이로 인해 주요 10대 도시의 인터넷 속도는 최소 다운로드 스피드 80Mbps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내의 사업장들이 큰 이익을 보게 될 전망이며 향후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10대 지역 외 다른 지방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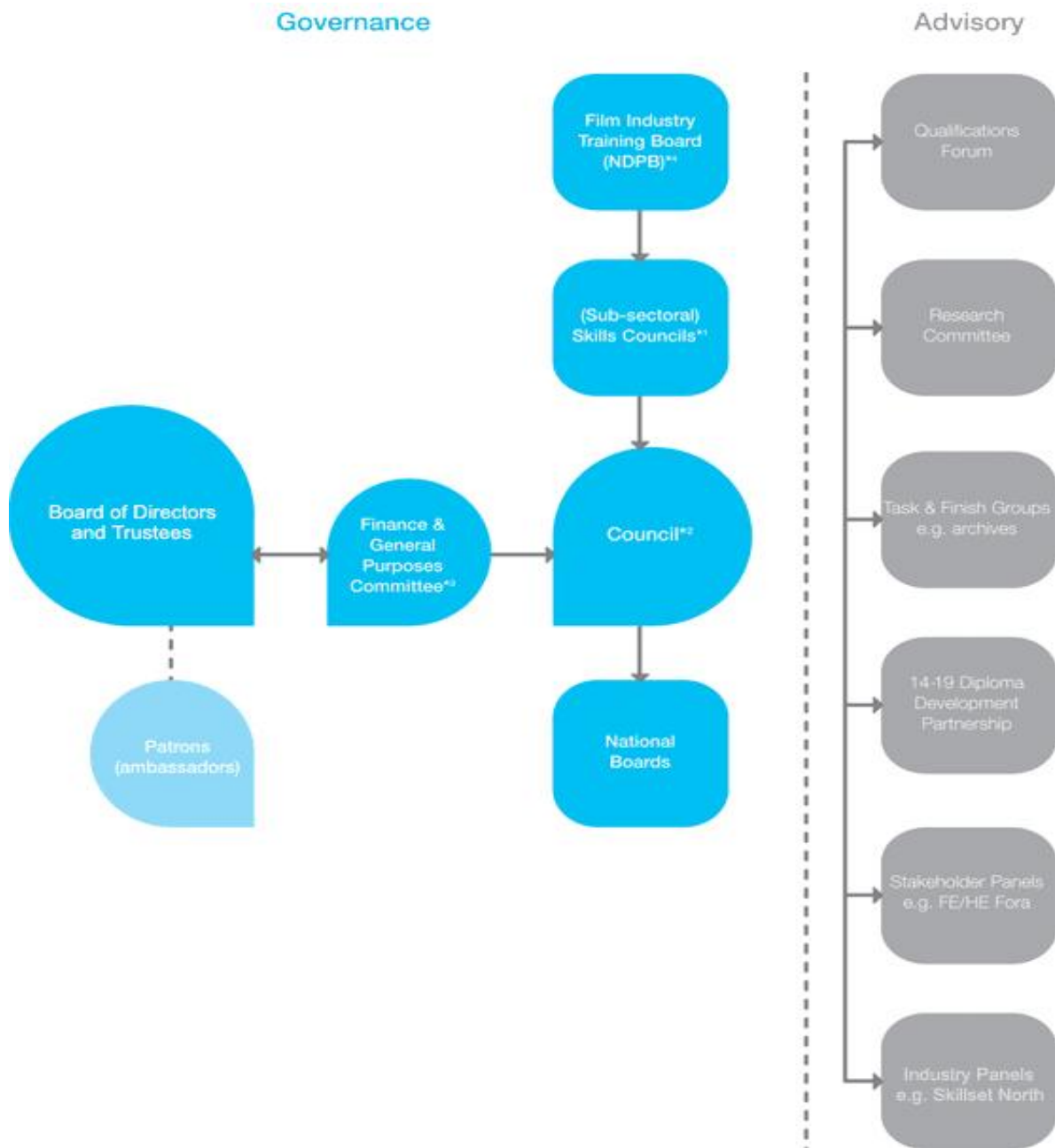
<최고속 브로드밴드 도시별 자금 분할>

도시	최하 지원금	최상 지원금
맨체스터	£ 12m	£ 12m
버밍엄	£ 7m	£ 10m
브리스톨	£ 4.2m	£ 12m
벨파스트	£ 6m	£ 13.7m
뉴캐슬	£ 4m	£ 6m
리즈 및 브래드포드	£ 10m	£ 14.6m
에딘버러	£ 8m	£ 11m
카디프	£ 7m	£ 12m
런던	£ 10m	£ 25m

■ 조직/추진체계 현황

- BFI
 - 지난 2011년 4월 1일 부로 영국영화진흥원 The British Film Institution (BFI)가 영화부 분에 있어 전략적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됨
 - BFI의 주요 정책 사안들은 첫째 영국영화산업의 지속성을 진작하고, 둘째 움직이는 이미지에 대한 교육과 접근성 개발 등으로 올바른 영화문화 정착을 만들어 가며, 셋째 영화관 출입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를 유발하는 것과, 넷째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상 아카이브에 대한 보존 등임
- Film London
 - Film London은 영국 국내 영화 투자에 관한 것을 총괄하는데 이것은 영국 영화위원회 (British Film Commission)를 통해 이루어 짐
 - 참고로 영국 영화 위원회는 영국이 장편 극영화 제작에 있어 최고의 장소라는 것을 프로모션 하는데 있음

- Film London과 이사회의 지휘로 영화위원회는 영국이 장편 극영화 제작을 유치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책, 전략 및 목표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Pinewood Studio 그룹, 영국 영화관 협회, 그리고 영화제작조합 등 영국 내 주요 영화 산업 조직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는 정부를 대신하여 공금자금을 지원 받는 아래의 조직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
 - Skillset and Skills Investment Fund
 - Creative England in the regions
 - First Light
 - The MEDIA desk
 -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
- 크레이티브 스킬셋(Creative Skillset)
- 크레이티브 스킬은 영국 창조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우월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인력들이 필요한 훈련과 기술들을 지원하는 산업기구임
 - 크레이티브 스킬은 영화, TV, 라디오, 쌍방향 미디어,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출판, 광고, 패션 및 텍스타일 분야의 기술 향상에 힘쓰고 있음
 - 크레이티브 스킬은 유한책임회사이자 자선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조직은 아래와 같음



○ 주요정책

- 크리에이티브 스킬셋(Creative Skillset) 재원
 - 크리에이티브 스킬셋은 공공자금을 창조산업 내에 훈련프로그램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크리에이티브 스킬셋 자금의 목적은 영국 창조산업 내 종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임
 - 자금은 창조산업 종사자, 업체, 교육분야 기관, 프리랜서, 트레이닝 전문가, 개인 사업자들에게 열려져 있음
- 예) TV 전문 프리랜서(프로듀서, 방송기술)의 경우 최대 GBP 800 상당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펀드에 지원 할 수 있는데 최고 80%의 펀드를 지원 받을 수 있

음

- 영화분야 전문가일 경우 Creative Skillset Film Skill Fund 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데 이 자금은 영화진흥원을 통해 책정되는 국립복권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임
- Creative Skillset Cymru Freelance Funding은 웨일즈 상공회 (Teledwyr Annibynnol Cymru)와 웨일즈어 TV 채널인 S4C로부터 자금을 양도 받아 웨일즈 출신 TV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외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도 운영 중.
- 업체 후원
 - Creative Connection 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창조산업체들에게 필요한 직원 채용, 트레이닝, 개발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재와 미래의 결핍된 기술 분야를 찾아내어 적극 홍보 및 지원 사업을 펼침
- 표준 직업
 - Creative Skillset의 주요한 정책 중 하나는 창조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종사자들이 국가표준직업을 준수하거나 개발시키기 위한 것임
 - 국가표준치를 준수함으로써 창조산업 종사자들이 일에 필요한 기술, 지식, 및 경험 등을 인지 할 수 있음
- 자격증
 - 창조산업 종사자들의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제반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 자격증에는 GCSEs, A-level, 견습생제도, 디플로마, 기술증명서, 국가직업자격증 등을 포함하고 있음
 - Skillset은 해당 관청과 수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창조산업 종사자들 및 고용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음
- E-Skill
 - 미래 IT 산업의 역군이 될 학생들을 발굴하고 현재 IT 업계 종사자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겸비하기 위한 지원과 사회전반에 걸쳐 IT 산업이 초래하는 파급효과를 홍보하는 것이 E-Skill의 주요 목적임
 -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효과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영국 내 IT 관련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개발을 조장함
- CC4G
 - 영국 내 3,700개 학교에 걸쳐 135,000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IT 클럽을 운영하여 이들에게 IT에 대한 생각을 전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함
- BigAmbition
 -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14-19사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IT 를 좀 더 쉽고 흥미로운 것으로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목적
 - 학생들은 이 사이트에서 현재 IT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와 진출 할 수 있는 IT 업계들 열람, 현재 최신 IT 기술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음
 - E-Skill의 주요 정책은 여학생들의 IT 업계에 대한 태도를 변화 시키는 것인데 이 사이트에 등록된 73%가 9,000명의 여학생들로 효과가 있음
- ITMB 학위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for Business)
 - 현재 영국 내 14개 대학에서 850여명의 학생들이 해당 학위 코스를 진행 중에 있

으며 최근 졸업생들은 IBM, P&G, Logica 등에 취업함

○ 견습생 제도

- e-Skill은 영국 내 IT 견습생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그 수준에 따라 금, 은, 동으로 나누고 있음
- 지난 2011년 한 해 6,500명 이상이 견습생 코스를 성공적으로 마침

○ 기업혁신기술부와 UK online 과의 파트너십

- 현재 121,000명이 온라인 기초 코스에 등록하고 있으며 이들 중 70% 이상은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있어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느끼며 90% 이상은 배움의 기회가 있다고 함

○ Nesta

- Nesta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독립 기구로 개발단계 아이디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투자유치, 연구보조, 네트워크 형성 등을 도모하는 기관
- 영국의 사회 경제 전반의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이 이노베이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전제로 광범위하기 보다는 집중적 공약을 통해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
- 주요사업
 - 2011년 이노베이션 펀드를 공모. 440개 이상의 응모자중 32개 아이디어를 채택 2.5 밀리언 파운드 투자
 - 예술과 문화 디지털 연구 발전 기금- Art Council 과 AHRC (Art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과 공동으로 디지털화를 희망하는 단체를 지원
 - 494 응모 단체 중 393 단체를 심사했으며 선정기준은 예술계 타 단체들의 연구 결과 활용도를 꼽았으며 확대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음
 - 펀드는 예술기관과 연구단체들의 협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음
- 현재 주요 프로젝트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 대학 및 민간 연구 단체들과 공동 프로젝트 지원
 - 옥스퍼드 대학 컨설팅과 베타시 아트센터프로젝트 등 다수

○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도구 (Creative Industry Marketing Tool)

- 지난 2006년 영국무역투자청 (UK Trade & Investment)이 시작한 신전략 ‘변환시장에서의 번영(Prosperity in Changing World)’ 에서 창조산업을 비롯한 5개 분야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됨
- 사업목적
 - 세계 시장에서 영국 창조산업의 위상을 높이며 창조산업 업체들의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마케팅 전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구매자나 투자가들에 대해 영국의 창조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것
 - 창조산업체들이 마케팅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는 지원 사항과 주요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영국 쌍방향 엔터테인먼트 협회(The Association for UK Interactive Entertainment(UKIE))

- UKIE는 영국 정부, 소비자, 그리고 쌍방향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에 대해 해당 시

장의 최근 동향을 전함

- 회원들에 대한 최상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 쌍방향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허브로의 역할

- 현재 정책

- 일부 위원들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쌍방향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소하고 정부가 이 사업의 규모와 잠재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협력하며 적절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해당 사업에 공공자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초점
- The Livingstone Hope 리뷰를 통해 현재 영국 내 공립학교 커리큘럼에 디지털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컴퓨터 코딩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현재 정부 당국과 협의 중에 있음

○ 영국광고협회(Advertising Association)

- 광고협회는 영국 내 광고주, 에이전시,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광고 및 프로모션 산업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임
- 광고를 진흥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주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 광고업계의 현안을 의회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대변하는 것임
- 아동 복지, 알코올 중독, 비만 등 복잡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
- 결정된 정책들을 알리며 연구 보고서를 배분하여 광고가 가지는 가치와 이익을 전파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문화 창조 기술원(Creative & Cultural Skill)

- 문화 창조 기술원 (CCS)은 영국 기업혁신기술부로부터 분파기술위원회 (Sector Skill Commission)로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관으로 영국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기술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함
 - 라이선스 보유로 인해 CCS는 영국의 창조 문화 산업계에 있어서 표준 세팅 기구로 존재함
 - 또한 견습생 제도를 발부하는 정부가 인정한 공식기관
 - 견습생 프로그램들이 실제 일자리에 투입되기 전 적절한 수준의 기술을 유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둠
- 2012-2015 3개년 전략적 목표
 - 영국 청년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들이 창조 문화산업계의 정보, 조언, 가이드라인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창조산업계의 채용 문화 변화를 주도하며 유상 인턴십 혹은 견습생 제도를 활용하여 재능 있는 인재들에게 등용문을 넓힘
 - 창조산업계 내의 종사자, 고용인, 프리랜서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

○ 영국디자인 위원회(Design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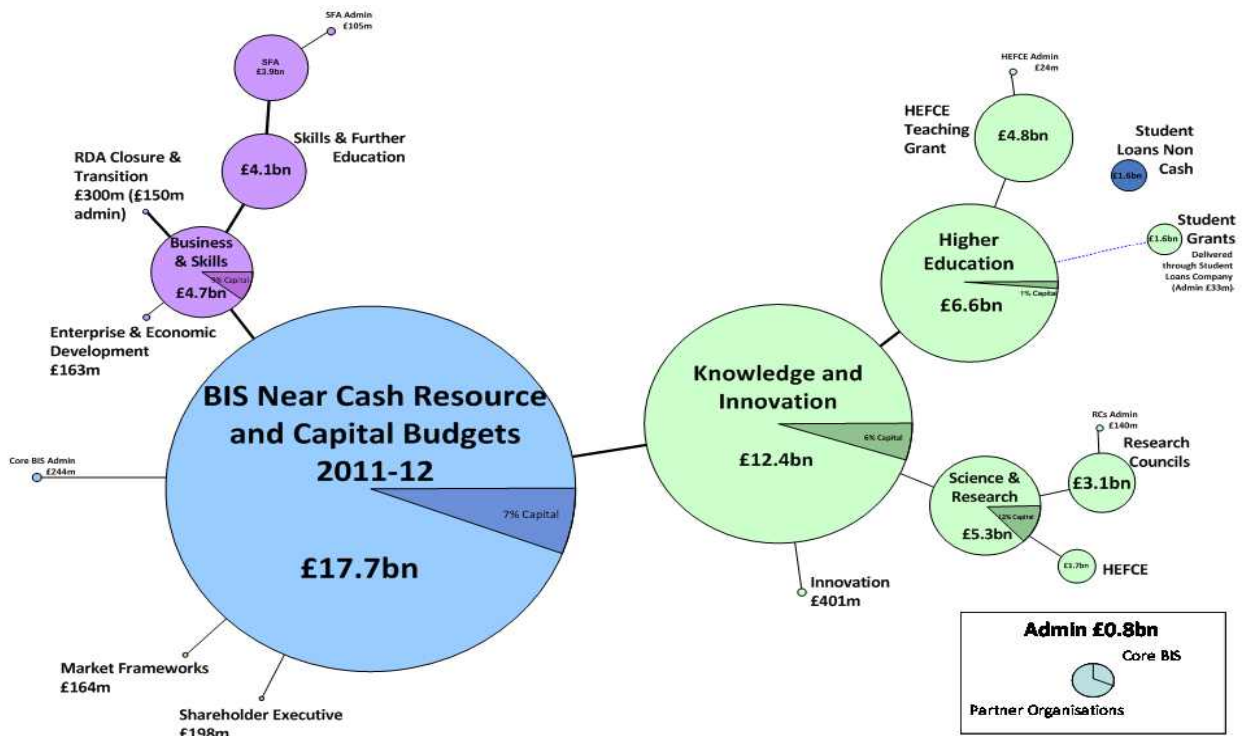
- 디자인 위원회는 보다 나은 환경, 산업, 커뮤니티를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 복잡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다루며 산업과 공공사업에 혁신성을 추구
-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한 디자인 정책을 만들어 감
- 사회 간접자본시설과 주택문제 등과 같이 도시지역 인구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가를 보여 주는 것
- 시장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을 나은 공공서비스와 성공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이용함
- 현재 노인 인구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미래에 예견 될 수 있는 사회적 제반 시설 문제점들에 대한 디자인이 줄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해 나가는 것

■ 예산

- 창조산업에 대한 예산 증가
 - 재무장관은 오는 2013년 4월부터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및 최신 TV 프로그램 등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 세계분야에 대한 세제감면 계획을 발표
 -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및 TV 프로그램은 종전 영국방송사들이 해외에 나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트렌드를 종식시키는 한편 외국회사들이 영국 내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됨
 - 비디오 게임의 경우 세제감면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전체 영국 경제에 총 £280 백만 파운드 상당의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문화 체육 미디어부의 2012/2013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현황
 - 예술과 미디어 부분이 창조산업과 연관된 유관 기관들에게 집행 되는 예산임
 - 미디어 부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영국영화진흥원, S4C 채널, 브로드밴드 그리고 여타 다른 미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술 부분에 상세 항목은 나와 있지 않음



○ 기업혁신기술부의 2011년 예산 집행 현황표

- 올해 기업혁신기술부의 예산 중 기업 및 경제 개발 항목과 기술 및 고등교육 분야가 창조산업계 해당되는 예산

Notes:

- £m figures show total expenditure of which
 - Solid Colour – resource spending
 - Brick Shading – capital
 - Confetti Shading – PFI Schemes

